



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정인영 연구원

■ 12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「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」의결안을 통해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금융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힘.

- 기준금리는 국내외 금융·경제의 상황 변화 및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함.
-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기대비) 기준 $3.0 \pm 1\%$ 로 설정함.
-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함.
- 북한 관련 불확실성 증대와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, 최종대부자로서 효율적 수행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함.
- 금융부분 취약요인 및 시스템리스크 포착·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 해소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함.
-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.

■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2012년 국내외 금융·경제상황은 높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, 그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.

- 2012년 중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임.
- 국내 실물경제의 경우 성장세는 당분간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될 전망이나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, 북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며,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함.

- 국내 금융·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.
- 또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증가규모가 축소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일부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,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으로 계속 잠재하고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음.
- 정부예산 증가율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나 재정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.

(한국은행 보도자료, 12/29)